

제목 :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성도

본문 : 마 5:14-16

시작찬송가 : 344(새545), 434(새384), 456(새430)

헌금찬송가 : 350(새320), 410(새310), 497(새440)

고대세계에서 소금은 매우 귀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가장 유용하고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을 ‘소금과 같은 사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스인들은 ‘소금은 신과 같다’고 했고, 로마인들은 ‘태양과 소금처럼 귀한 것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빛은 ‘나타내고, 인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동차·비행기·배들이 빛의 인도함을 받고 운행하는 것처럼, 성도는 인본주의의 무지에 휩싸인 이 사회를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점점 윤리와 도덕이 타락하고 성실과 정직, 근면의 표준이 낮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성도들은 겸손과 성실과 정직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1. 세상 속에 있는 성도

① 세상은 이리 같은 인간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마 10:16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② 세상은 소망을 둘 수 없는 곳입니다. 또한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엡 2:12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행 2:40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③ 세상은 잠시 머물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요일 2:17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④ 세상은 어둠의 주관자들이 활동 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과 벗하고, 세상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롬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 세상과 성도의 관계

① 성도는 세상의 걱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 13:22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갈 6:14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②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세상에서 봉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요 20:21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③ 성도는 세상의 빛 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등불이 되어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가야할 길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마 5: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난 1천년 동안 인류가 큰 발전을 이루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을 뽑는다면 우리 인류에게 빛을 선물한 에디슨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의 빛은 길거리의 어두움을 해결하여 주었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은 밝혀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을 어두움에서 해방시켜 주실 참 빛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동서양의 모든 역사도 어두움의 역사였습니다. 어두움에 잠겨있던 이 땅에 빛을 비취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없으면 아무 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이 세상, 참 빛이 없는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인간은 오랫동안 어두움의 사상, 어두움의 지식, 어두움의 도덕, 어두움의 문화의 길을 끊임없이 방황하며 걸어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어 인간은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진리를 보고, 죄를 보고, 천국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보게 되면서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취질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온갖 더럽고 악하고 불의한 생각들이 다 떠나가고 삶의 주변에 있는 어두운 것들이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빛의 종교입니다. 빛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빛은 밝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밝아집니다. 개인의 마음도 밝아지고, 가정도 밝아지고, 사회도 밝아집니다. 그러나 사람을 빛으로 여기는 나라는 없습니다. 인도를 보십시오, 북한을 보십시오, 예수 이외에는 빛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빛이 영혼을 비추고 심령을 비추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빛은 아름답습니다. 빛의 색깔은 찬란합니다. 빛이 만물을 비칠 때 아름답습니다. 어두움은 언제나 한 가지 색깔이지만 빛은 수백 수천가지로 만들어집니다. 주님의 빛이 나를 비칠 때 내 삶이 아름답게 보이고, 내 아내와 자녀가 아름답게 보이고, 밥상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빛이 없어지면 모든 것이 어둡게만 보입니다. 온갖 저주와 한탄, 비애와 슬픔만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비록 밤일지라도 아름답습니다. 어둠 속에 불이 켜진 빌딩이나 폭포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출 때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우리의 언어가 아름답고,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됩니다

셋째, 빛은 생명입니다. 태양 빛이 비추어지면 모든 생명이 살게 되고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많은 영양분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의 빛이 우리 인간에게 비추어 질 때, 우리의 생명이 살게 됩니다. 우리가 자라납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빛의 삶은 아름답고 건강합니다. 빛의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다 남향으로 짓는 것은 빛을 많이 받기 위함입니다. 빛을 많이 받는 집이 좋은 집이요, 빛을 많이 받는 마을이 좋은 마을이 되기 때 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빛을 많이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의 삶에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빛 되시는 예수님과의 사귄입니다. 빛을 가까이 하는 삶이 그리스도 안의 삶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빛의 축복을 길이길이 누리면서 복된 삶을 영원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당회장 목사님 말씀 中)

오늘의 한마디 :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금주의 기도제목

1. 당회장 목사님의 목회사역을 위하여. 당회장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2. 성전 건축을 위하여.
3.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4. 공동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 지도록.